

# 불붙은 요양사업... KB라이프 이어 신한라이프 본격 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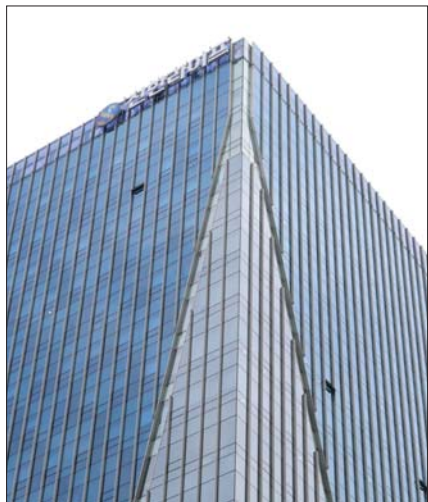
신한라이프케어 첫 요양시설 개소  
'분당데이케어센터' 입주자 모집  
2028년까지 5개 시설 추가 설립

교보생명 '다솜케어' 간호사 채용  
삼성생명, TF팀 신설·진출 고심

신한라이프가 요양사업에 본격 참전한다. KB라이프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도 첫 요양시설을 개소하면서 요양사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4일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올해 1월 출범한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다.

신한라이프케어가 개소한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운동, 재활, 식사서비스 등을 체계



신한라이프 사옥. /신한라이프

적으로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는다"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명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당데이케어센터 개소를 준비했다. ▲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채용을 진행해 왔다.

지난 8월엔 삼성웰스토리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노블카운티 등 시니어 식당 운영 관련 전문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분당데이케어센터 입주자를 위한 식음시설을 담당한다.

같은 달 시니어 공간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안전관리부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체계적인 헬스케어 시스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총 54명의 입주자를 목표로 채용된 19명의 직원이 함께 머무

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분당데이케어센터에 이어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개와 실버타운 1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엔 경기 하남시에 요양원을, 오는 2027년에는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설립을 앞두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비급여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라며 "실버타운은 공동체의 삶이나 생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첫 요양시설 개소로 요양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생보업계의 요양사업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KB라이프생명은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드라이프케어'를 인수하면서 생보업계 요양사업 첫 발을 내딛은 바 있다.

KB골드라이프케어는 지난 2017년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빌리지, 2021년 서초빌리지를 열었다. 지난해 말에는 첫 실버타운인 평창카운티를, 내년 4월엔 은평빌리지 개소를 앞두고 요양사업을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는다.

대형 생보사 가운데 교보생명은 지난 달 자회사 '교보다솜케어'를 설립하고 간호사 채용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올해 초 요양사업 검토를 위한 '시니어리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장 진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신한라이프 입장에서 사업 진출 초기에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설립하는 것 보단 데이케어센터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이 또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요양사업은 보험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co.kr

## 양종희 "기업가치 제고계획 완성은 실행력"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 연례 주주간담회  
"주주환원 총실 이행, 신뢰 쌓을 것"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완성은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3일 KB금융의 국내외 주요 주주를 초청한 연례 주주간담회를 통해 "KB금융은 새로운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주주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주간담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온 KB금융의 대표적인 IR 행사다. 주주들과 이사회,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그룹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주주간담회에는 30여명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석했다. 권선주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양 회장, 주요 계열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2024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워크숍'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사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집행임원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하여 밀도 높은 논의를 나누었다.

KB금융은 지난 10년간 주주간담회를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부터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정책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이행방안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권 의장은 "주주 중심의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주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직접 소통하는 전통은 오늘날 KB금융이 밸류업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소통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삼성화재,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조8665억

車 보험 손익 142억... 66% 감소  
일반보험 누적수익 10.4% 증가

삼성화재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86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3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7438억원,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5541억원을 기록했다.

장기보험은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의 증가와 안정적 예실차 관리로 누적 보험손익 1조33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했다.

3분기 말 CSM 총량은 전년 말 대비 8785억원 증가한 14조1813억을 기록했다.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채널 대응·전략을 통해 안정적 신계약 CSM을 창출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자동차보험은 누적된 보험요율 인하나 매출경쟁 심화 영향으로 3분기 보험손익 1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보상 효율 관리를 통해 누적 합산비율 96.1%를 시현해 누적 보험손익 1635억으로 흑자 구조를 견지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동반 성장으로 누적 보험수익이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고액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누적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1501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은 보유이원 제고 노력과 대체투자 등 평가의 확대에 따라 투자이익률 3.46%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p) 개선됐다. 누적 투자이익은 2조986억원으로 23.9% 증가했다.

## 서울 집값 0.06% 올라... 34주째 상승

성수 '트리마제' 6개월 새 5.5억 ↑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4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면서 34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광진구(0.08%→0.09%)가 광장·자양동, 중구(0.08%→0.10%)는 신당·흥인동 역세권 단지, 종로구(0.06%→0.09%)는 명륜2가·무악동 중소형 규모, 용산구(0.11%→0.10%)는 이촌·한남동, 성동구(0.14%→0.09%)는 성수·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4%→0.11%)는 반포·잠원동, 양천구(0.06%→0.06%)가 목·신월동, 강남구(0.18%→0.

19%)는 압구정·청담동, 영등포구(0.07%→0.06%)는 문래동3가·당산동4가 등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트리마제'는 이달 전용면적 136㎡가 6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매매가격(59억원) 대비 5억5000만원 상승했다.

11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3으로 전주(100.4)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지수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 신고 등 수요가 꾸준하지만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거래가 정체됐다"며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김기홍 JB금융 회장, 연임 성공... 임추위 만장 일치

내년 3월 이사회 거쳐 재선임  
현 성장세 유지 최적임자 평가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지난 13일 오후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김기홍 현 JB금융그룹 회장(사진)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장을 제외하곤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된 JB금융지주 임추위는 이번 회장 후보 선정에 앞서 그룹 내부 임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체 후보군을 확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군 압축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에는 최종 후보



군으로 김기홍 현 회장을 포함해 내·외부 후보자 총 4인의 후보를 선정하고, 지난 13일 PT발표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PT발표와 심층면접에서는 JB금융그룹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 전문성, 리더십, 사회적 책임 등 CEO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임추위 위원들은 업종 최상위 수익성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오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JB금융지주 유관우 이사회 의장은 "김기홍 회장은 현재의 사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핀테크·플랫폼 회사와의 협업 등 JB금융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을 위한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JB금융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룹의 현 성장세를 유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틈새시장 공략을 고도화하는 등 JB금융그룹의 향후 3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라고 모든 임추위 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